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호국불교 문인화로 표현



동화사 편액. 난은 나라 잃은 슬픔을 대나무는 절조의 의지를 보여준다.

난죽화 사찰현판 소견(所見)

해강(海岡) 김규진(金圭鎭)은 구한말의 애국지사로서 전서·예서·해서·행서·초서에 모두 그 지극의 경지에 달한 명필이며 당대 최고의 대자(大字, 현판글씨)의 대가였다. 현재 한국의 어느 누구도 해강의 현판글씨를 넘어서는 이는 없다.

그 뿐 아니라, 시서화 삼절(三絶)로서 산수, 영모, 서군자 등에 탁월한 솜씨를 보이는 당대의 서화가였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한일합방 후에는 주로 대나무만 그리며, 나라를 잃은 한을 서화에 풀며 한 세상을 살다 간 보인다.

경남 합천의 해인사에 가면 가야산 해인사(海印寺)라는 단정한 해서(楷書)

문인화가 난초·대나무로

나라 잃은 슬픔 표현해

체의 대자 글씨의 현판이 입구를 장악하고 있다. 그 풍기는 기운이나 엄정한 느낌은 이루 말할 수 없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면모를 지니고 있다. 바로 해강 김규진의 글씨다.

해강은 또한 영진왕 이은에게 서법을 가르쳤다. 또 한국 최초로 사진술을 도입하고 어진 사진사가 되었다. 그림이 하면 안중식·조석진과 함께 서화협회를 창설하여 후진을 양성하고 전국에서 서화전을 개최했다.

해강은 한 동안 전국의 31본산 본사들과 대찰들을 다니면서 현판을 하나씩 써주고 서각까지 해서 보시하고 다니는 일을 하고 다녔다. 제자인 죽농 안순환과 더불어 전국을 다녔는데, 해강은 현판글씨를 쓰고 죽농은 현판의 좌우에 난초그림과 대나무를 그렸다.

죽농은 해강이 대나무 죽(竹)자를 붙여서, 제자인 안순환에게 지어 준 호이다. 그는 조선 궁중 최후의 주방장인 대령숙수로서 사용원의 후신인 전선사의 사장(司長)으로서 궁중음식의 백미였던

연회음식을 준비하는 소임을 맡고 있었다.

또한 근대 최초의 조선 요리집인 명월관을 설립하고, 교자상(交子床)을 발명하여 사용했다. 궁내부 주임관이던 전선사장을 역임하던 죽농은 1905년 을사늑약으로 조선총독부가 궁내부를 없애 버리자 정3품 이왕직사무관을 제수 받았지만 스스로 퇴직한다.

죽농이 개발한 교자상 요리는 원래 궁중연회가 끝난 후 임금이 아랫사람들에게 하사하는 사찬으로 현재 한정식의 원조이다.

그림 왜 두 사람이 전국의 대사찰을 돌면서 현판 글씨를 쓰고, 그 좌우에 난초와 대나무를 그렸을까? 죽농이 그린 많은 난초는 노근란(露根蘭)이다. 노근란은 유명한 송말원초의 정사초라는 문인화가가 나라를 잃은 백성의 슬픔을 표현하느라 그려서 많은 문인화가들이 따라 그렸다는 그림이다.

대나무는 왜 그렸을까? 대나무를 그릴 때는 보통 부러진 대를 하나 정도는 그린다. 나는 부러지되 절대로 굴복(屈伏)하지 않겠다는 군자와 선비의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죽농이 스승인 해강의 지시에 따라 노근란과 대나무를 그린 깊은 뜻을 알 수 있다.

노근란을 그린 뜻은 사찰을 찾는 불자(佛子)들에게 나라 잃은 슬픔을 상징하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고, 대나무를 그린 뜻은 비록 나라를 잃은 백성이지만 일제의 압제에 굴복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고 절조(節操)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호국불교의 면면한 한국불교의 특징은 지금도 한반도의 전역의 사찰에 그 기운을 펼치고 있다. 불교를 배우는 것은 애국하는 길이다. 그 숭고한 의미를 금생에 선양(宣揚)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백남준 예술 세계 새롭게 조망한다

탄생 80주년 기념 '광·선...'展

백남준 탄생 80주년을 맞아 세계 유일의 야외 레이저 작품 '올림픽 레이저 워터 스크린'이 재가동됐다.

올림픽공원 호수를 스크린 삼아 올림픽 오륜마크, 태극 4괘 등 레이저쇼가 펼쳐지는 이 작품은 자연과 기술의 조화를 보여준다.

백남준은 이를 통해 >인류의 번영과 화합 >평화와 공존 특히 한반도 >한민족의 공동 번영에 대한 염원을 현란한 빛과 조명, 수막분수의 리듬에 담아냈다. 이는 백남준의 2001년 작품으로 수년간 중단됐다가 작가의 탄생 80주년을 맞아 되살아났다.

해백남준 탄생 80주년 특별전 '광·선 백남준 스펙트럼'이 9월 16일까지 소마미술관에서 열린다. '올림픽레이저워터스크린(2001)'의 재단장은 물론 백남준의 커뮤니케이션·인스트럭션 아카이브와 컨셉 드로잉 170여점도 세계 최초로 공개된다.

상설관인 비디오아트홀에서는 지난 수년간 곳곳에 흩어져 있던 백남준 작품을 다시 모아 재개관했다. 이곳에서는 한민족의 기상을 예술로 승화시킨 메가트론, 금관, 쿠베르탱을 전시한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인스트럭션 아카이브와 컨셉 드로잉은 물론 백남준의 >싱글채널 비디오 >비디오 조각 >비디오 설치 >레이저 작업 >오브



백남준 작. 네온티비

레이저워터스크린 재단장

비디오아트홀 메가트론 전시

컨셉 드로잉 170여 점 공개

9월 16일까지 소마미술관서

제 >관화 등 총 240여점도 관객들을 찾아간다.

제 1전시실 아카이브 룸에서는 조각 및 대형설치를 위해 제작된 60여점의 아이디어 드로잉이 세계 최초로 공개된다. 이는 백남준과 동거동락하며 협업했던 주요 테크니션 2인이 보관하고 있던 작품들을 한 자리에 모은 것.

소마미술관은 "메가트론, 다다이즘, 레이저 작업을 위한 드로잉들은 그 자체로 건축의 조각과 사진의 블루 프린트와 같은 역할을 한다. 기능적 섬세함이 강조되는 이 드로잉들은 백남준의 생각과 소통방법



해백남준 탄생 80주년 특별전 '광·선 백남준 스펙트럼'이 9월 16일까지 방이동 올림픽공원 소마미술관에서 열린다. 사진은 백남준의 '올림픽 레이저워터스크린 2001'

그리고 협업자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귀중한 아카이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제 1전시실에서는 사진 드로잉 오브제 신문클립 등 110여 점도 소개된다.

제 2전시실에서는 어두운 벽면을 타고 더블 x(XX)로 설치되는 멀티모니터 설치 작품 W3는 선형적이고 자유자재로 증식하는 환상적 영상-망(image vista)을 보여준다.

제 3전시실 '비디오 상영관 Video Theatre'에서는 백남준 예술 세계와 업적을 다룬 다큐 등을 상영한다. 제4전시실 '일렉트로닉 슈퍼 하이웨이'에서는 대형

스크린을 중심으로 >드로잉 >오브제 >네온티비 조각 >레이저 디스크 설치 >멀티모니터 설치 >관화 등 다양한 예술의 새 길을 연 백남준의 예술적 스펙트럼을 만나볼 수 있다.

한편, 특별 이벤트로 개최되는 야외영화 감상회에서는 7월 21일 '노다메 칸타빌레:최종악장'을 8월 18일 '어거스트 러쉬' 등이 각각 상영된다. 또한 7월 28일에는 전체 관객에게 무료 이벤트도 연다. 입장료는 성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000원이다. (02)425-1077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경남불미협 정기회원전... 7월 31일까지

작품 수익금 소외 이웃에 전달

경남불교미술인협회(회장 윤판기) 제6회 정기 회원전이 7월 31일까지 대산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열린다.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지태스님)와 경남불교신도회(회장 공창석)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1년 동안 회원들이 작업한 그림 60여 점이 선보인다.

권영호 '살경 5호' 김두용의 '여름 이야기' 김덕진의 '심정사탈' 김학일의 '자연-감(自然-感)' 등 서양화 한국화 서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작품판매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돼 눈길을 끈다. 경남불미협은 "산사를 찾아가는 사색 '희망나눔전'이라는 부제가 붙은 만큼 작품판매 수익금의 공동생활가정 다습, 창원성심원, 의령사랑의집 등에 전달된다. 해마다 연화 같은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과 소통하고



김두용 작 '여름 이야기'

지역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경남불교미술인협회는 정기회원전은 물론, 합천해인사, 산청 검외사, 함양 화림동계곡, 하동 칠불사, 지포사 등으로 사찰 스케치를 해오고 있다. 2011년에는 삼진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초대전에 이어 '시·서·화로 만나는 불심전'을 대장경천년 세계문화 축제 기념 특별전으로 개최한 바 있다. (055)291-5237

정혜숙 기자

"맑은 노래로 부처님 마음 느껴봐요"

BBS 어린이·청소년 창작 찬불 동요제

BBS 불교방송은 제3회 어린이·청소년 창작 찬불 동요제 '맑은 노래 부처님 마음'을 개최한다. BBS 불교방송 '툼비니 동산'과 중앙승가대 보육교사교육원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7월 22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동요제에서는 >마음이 빛나요 >지혜어린이 >사랑 뽀뽀 미소 광광 나는 미래의 부처님 >연꽃 이야기 >연꽃등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마음 가는 길 >할짝 핀 연꽃 >지금 산사는 부처님 세상 >팔만대장경 >부처님 품안 >우리 부처님 >두 손을 모으면 >연등 등 14개의 작품이 본선에 올랐다.

BBS는 "찬불동요제는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의 저변을 넓히는 새로운 찬불 동요 창작의 산실이다. 2010년 1회 대회를 시



마포아트센터에서 열린 2011년 BBS 찬불동요제 장면.

작으로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동요제에서는, 예심을 거쳐 선발된 팀들의 맑고 향기로운 음성공양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요제는 7월 22일 행사 이후 BBS-FM, BBS-TV를 통해 전파를 탄다.

정혜숙 기자

7월 추천선물

행운과 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42수진언 그림 족자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범 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그린, 레드』 사찰용(65x150cm) 100,000원
가정용(45x120cm) 70,000원

- 색상과 사이즈를 선택하세요.
- 특별중정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 한쪽 벽면을 장식할 수 있는 블라인드 (150x230cm) 제작됩니다.

대유불교 시리즈

- ① 울! 그림으로 문 천수경 ② 예언의 허와 실 ③ 꿈! 마음의 열쇠
- ④ 꿈과 마음의 비밀 ⑤ 마음의 달 1,2 ⑥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 ⑦ 42수진언 족자 ⑧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신간)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주시고 손 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피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근거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입문의 : 대유학당 (02) 2249-5630

42수진언 족자 (그린)

입금계좌 국민은행 807-21-0290-497 (예금주:윤상철)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다양한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daeyou.net NAVER 대유학당 네이버에 "대유학당"을 검색해 보세요.